

“품질은 양심”… 시몬스, 바나듐 스프링으로 프리미엄 새 기준

포스코·고려제강과 바나듐 공동개발
경강선보다 5배 강한 스프링 적용
1000만회 내구시험으로 품질 검증
팩토리움 하루 600~700개 생산
소재부터 물류·고객관리까지 통합
‘시몬스 스탠다드 5’ 새 기준 제시

포켓스프링에 들어가는 바나듐 스프링의 총 길이는 연간 기준 약 30만km, 지구 7.5바퀴와 맞먹는다. 1개의 포켓스프링에는 260mm의 바나듐 스프링이 들어간다.

그런데 시몬스는 한 종류의 포켓스프링만 쓰지 않는다. 허리, 엉덩이 등 신체의 무게 중심, 몸의 곡선 등 탄력, 지지력, 형태 등에 따라 ▲오리지널 포켓스프링 ▲S-포켓스프링 ▲I-포켓스프링 ▲더블-포켓스프링 ▲어드밴스드 포켓스프링을 조합해 하나의 매트리스를 완성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금속이나 강철보다 강한 바나듐으로 스프링을 만들어 쓰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 시몬스는 호텔 전용 매트리스까지 포함해 총 40개가 넘는 모델을 이곳에서 모두 생산한다. 축구장 10개 크기와 맞먹는 시몬스 팩토리움은 하루 최대 1000개 이상의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각 공정의 품질, 제품 완성도 등을 고려해 하루에 600~700개 수준만 생산하고 있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시몬스 침대의 생산 거점이자 심장부다.

시몬스에서 생산물류전략부문을 총괄



시몬스가 지난 21일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진행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종성 생산물류전략부문 총괄 부사장(왼쪽 3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하고 있는 이종성 부사장은 “시몬스 팩토리움은 2017년 경기 이천에 구축해 올해가 9년째로, 소재 선정과 검증,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물류, 고객 케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나듐 포켓스프링인데 시몬스와 포스코가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스프링 선재를 함께 개발하고 고려제강이 이를 정밀 생산해 공급하면 우리가 숙면공학 노하우를 더해 매트리스를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를 지향하는 시몬스는 바나듐 포켓스프링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포스코, 고려제강과 3자 협력을 체결했다.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현 이사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2024년 7월에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바나듐 수급 안정화, 품질 관리 안정화가 중요했고 무엇보다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생

태계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올해에 3자간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재 개발, 정밀 가공, 숙면공학의 결합체인 셈이다.

바나듐(Vanadium), 원소기호 V, 원자번호 23.

항공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바나듐은 강철·합금 강도와 온도 안정성을 높이는 등 유연성, 내구성이 우수해 고압, 고온 등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신소재다. 한 마디로 바나듐은 잘 늘어나고 잘 퍼지면서도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탄생한 시몬스는 1925년 당시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 기계 특허를 취득하며 대량 생산 토대를 만들었고 침대를 대중화 시킨 장본인이다. 1925년은 시몬스의 스테디셀러인 뷰티레스트(Beautyrest)가 세상에 나온 해이기도 하다.

한국 시몬스는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제강·선제분야 두 기업과 협력해 스프링을 기존의 경강선보다 5배 정도 강한 바나듐으로 완벽하게 대체했다. 청출어람이다.

시몬스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하루에 20만 번 이상, 총 1000만 번 이상의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스프링은 멀쩡했다.

수면 연구와 소재 기술을 담당하는 권오진 상무는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중간 부분이 넓고 위아래는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로 설계했다. 항아리형 스프링은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간섭이 적어 장시간 사용해도 지지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개별 스프링은 신체 구조, 무게 중심을 고려한 조닝 시스템, 50여 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조합하는 레이어링 기술과 결합해 하나의 매트리스로 탄생한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생산을 완전히 멈추기도 했다.

김동현 이사는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조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품질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쉴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시몬스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침대의 기준이 되는 ‘시몬스 스탠다드 5 (THE SIMMONS STANDARD 5)’도 새롭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는 바나듐 포켓스프링 ▲고품질 유지의 핵심인 양심적 품질관리 ▲작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청결한 생산환경 ▲배송 혁신을 이끄는 자체 직배송 시스템 ▲구매 및 제품 설치 후에도 이어지는 빈틈없는 고객 케어가 포함돼 있다.

이종성 부사장은 “프리미엄 침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얼마나 촘촘하게 검증하며 고객 침실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다섯 가지 기준은 각각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소재 연구부터 고객 경험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시몬스의 통합 품질체계를 구성한다. 우리 ‘품질은 양심’이라는 원칙으로 침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10곳 중 6곳 “납품대금 30일 내 지급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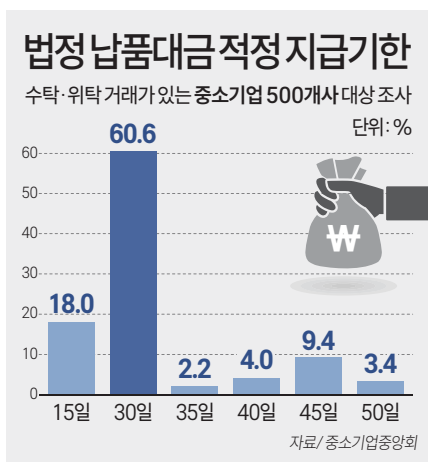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수탁·위탁 거래 설문조사
현행 법정 지급기한 60일의 절반
수탁기업 71% “단축 시 경영 도움”
절반 이상 자금 유동성 개선 기대

중소기업들은 일감을 주고 받는 기업끼리 오가는 납품대금 걱정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감을 받는 수탁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면 자금 유동성 개선 등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행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



·위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위탁 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에 대한 답변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15일’ 18%, ‘45일’ 9.4%, ‘40일’ 4%, ‘50일’ 3.4%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또는 ‘15일’이 전체 응답의 78.6%에 달했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된다’가 71%로 많았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지급기한을 줄이는 것이 경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용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 美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현지법인에 4150억 투입

한화디펜스USA에 2068억 추가 출자
K9MH 시제품 6문 美 육군 첫 계약
전략투자 법인에도 2082억원 투입

한화가 미국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현지 자회사에 약 4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미 육군 자주포 사업 진입에 맞춰 지상방산 법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전략투자 재원도 확충하며 현지 사업 기반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한화

디펜스USA와 미국 전략자산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참여하기로 했다. 두 법인에 투입되는 자금은 각각 1억4900만달러와 1억5000만달러로 총 2억9900만달러(약 4150억원)다.

미국 지상방산 사업을 맡는 한화디펜스USA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억4900만달러(약 2068억원)를 출자한다. 한 차례 출자액으로는 지금까지 한화디펜스USA에 투입한 누적 자금 1597억원보다 약 30% 많다.

지난 4월 출자한 약 921억원을 더하면 올해 한화디펜스USA에 투입하는 자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추가 투자는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의 기동전술포(Mobile Tactical Cannon·MTC) 사업에서 K9 계열 자주포 시제품 계약을 확보한 시점과 맞물린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9일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미 육군과 체결한 첫 대형 계약으로 기본 계약액은

1억30만달러(약 1417억원)다.

미 육군이 추가 12문에 대한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공급 물량은 최대 18문, 계약 규모는 2억6200만달러(약 3715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현재는 양산 계약이 아닌 시제품 공급·시험 단계다. 미 육군은 장병 운용시험 등을 거쳐 향후 전력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 사업 기반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펔라이카의 시설을 3년간 임차해 K9 계열 자주포의 현지 통합·시험 거점 구축에 나섰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제조 600명 채용

무로교육 거쳐 中企 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600명을 모집한다. 이와 별도로 재창업자 200명의 제도전도 돕는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스마트공장 운영·관리하는 현장 실무 인력(트랙1), 공정개선과 품질관리 등 제조AI 솔루션 개발 인력(트랙2)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선발한 교육생에게는 1개월 내외의 스마트제조 관련 직무교육과 함께 훈련수당(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수료 후에는 스마트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매칭돼 최대 3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이후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생의 역량과 희망직무 등을 고려해 잡매칭 데이, 기업 설명회 등 다수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전경.